

## 시끌벅적 e-스타



### 이유야 어떻든.. 누나가 좋다

시대를 따라 둘고 도는 '트렌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남녀들에게는 연애도 하나의 '트렌드'다.

요즘 가장 각을 받고 있는 연예 '트렌드'는 드레스풀이다. 쉽게 말하자면 오빠와 동생이 아닌 누나와 동생의 로맨스를 뜻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새로운 연상연하커플을 소재로 한 '연상녀가 좋은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동영상은 제작한 이는 남성. 남자의 입장에서 밝힌 누나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거에 한다는 부담감이 없다는 것, 여자친구가 5살 많지만 돈 내가 더 많이 내고, 어려운 도움 많이 부립니다, "잘 만들었네요. 동감합니다", "연상여자도 여자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연상이라고 특별한 건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적인 허용범위가 넓을 것이라는 확

신도 누나들의 매력을 높인다. 확신의 이유는 나이에 비해 성적 경험에 비례할 것이다. 남자들의 생각 때문. 상대를 리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쿨한 이별도 누나들이 좋은 이유 중의 하나. 나이가 들수록 연애에 감정이 무뎌져 연하남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그 설명이다.

모성애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남자들에게 포근함은 누나들의 결정적 매력이다.

네티즌은 "연애에는 정답이 없다. 나도 여자친구가 5살 많지만 돈 내가 더 많이 내고, 어려운 도움 많이 부립니다", "잘 만들었네요. 동감합니다", "연상여자도 여자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연상이라고 특별한 건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성적인 허용범위가 넓을 것이라는 확

신도 누나들의 매력을 높인다. 확신의 이유는 나이에 비해 성적 경험에 비례할 것이다. 남자들의 생각 때문. 상대를 리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술과 함께 누나 찾는 5가지 이유!

## 오늘의 유머

### ■ 아버지의 성교육

아버지가 성교육을 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덟 살 먹은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아빠가 너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네, 아빠 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다름 아니고, 성에 관한 것인데... 그게 말이 다..."

그러자 당황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괜히 말씀하세요. 무엇이 알고 싶으신데요?"

### ■ 할머니의 향변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장마철이 되어 아픔을 참지 못한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다.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쑤시는데 요즘 같은 날씨엔 저지히 못 참겠수. 혹시 나쁜 병은 아닌가 모르겠어."

걱정하는 할머니와 달리 의사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벅터 화를 내며 말했다.

"이보슈, 의사 양반! 아프지 않은 오른쪽 다리도 나이는 동갑이여!"

### ■ 어떤 남자

식구가 많은 남자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소에 갔다. 식구들에게 우람 종우를 보여주려는 남자가 매표원에게 가사를 했다.

"이봐요, 우리 일행은 나하고 마누라 그리고 아 이가 열 세 명인데... 혹시 반값으로 그 황소 좀 구경할 수 없을까요?"

"자녀가 열 세 명이나 된다고요?"

깜짝 놀란 매표원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 좀 보라고 황소를 데

리고 나올 테니..."

### ■ 답안지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던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시험날을 맞았다.

시험문제를 풀지 못해 한참을 끔끙대던 학생은 궁여지책으로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답안지에 쓰고 교실을 나왔다.

다음날 학생은 이렇게 체점된 답안지를 받았다.

'하느님은 100점, 학생은 0점!'

### ■ 할인가격

50대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갔다. 젊은 남자 점원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짧고 멋져 보이십니다."

기분이 좋아진 아주머니가 점원에게 말했다.

"어머 그래요? 내가 몇 살 같아요?"

"30대 초반 같으세요."

"어머 그렇게 봐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남자 점원이 천연덕스런 표정으로 대답했다.

"필요, 저의 가게에선 뛰든지 30% 할인해 드립니다."

### ■ 수면제

한 여자가 의사의 시설을 찾아가 불평을 했다.

"이웃 집에 있는 개들이 밤낮으로 짖어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러자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여기 새로 나온 수면제가 있는데 꿈을 꾸듯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몇 주뒤 그 여자가 다시 의사의 시설을 찾았다.

"선생님 처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보다 더 힘들어 졌더구요."

의사가 활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방해 준 약은 시중에 나온 약 중에서 가장 약효가 좋은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밤새도록 개를 쫓아 다니며 약을 먹이느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 리빙 센스

### 장마철 패션 팁

#### ■ 미 소재의 가벼운 옷

청바지는 물에 젖으면 무거워지고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밀단이 넓은 힙 스타일은 물에 젖으면 무겁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9부나 7부 바지는 활동하기도 가볍고 밀단이 젖지 않아서 좋다. 금방 마르고 몸에 불지 않는 미 소재의 바지도 좋다.

#### ■ 기방은 크게, 신발은 높게

가죽 가방은 피하고, 우산은 담고 다닐 수 있는 비닐이나 나일론 소재의軽便한 가방을 드는 게 좋다.

바단은 미끄러지지 않게 생고무로 된 신발이 좋다. 발등 부분은 스판 매쉬 소재로 된 신발이 통풍도 잘 되고 물기도 빨리 마른다.

### 知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9일(음 5월 16일 庚寅)

**子** 36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할 일이 많다. 48년생 시가 상장이나 차마 조심을 하라. 60년생 주변의 식구가 줄어들 수 있다. 72년생 희망의 소식은 털려오니 서둘지 않아야 한다. 84년생 금하게 서두르지 말고 생각하며 웅하다.

**丑** 37년생 시기상조이나 슬픔이 터진 기분이다. 49년생 옛 친구를 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리라. 61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73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85년생 자갑을 조심하다.

**寅** 38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50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며 사비 송사가 발생 수니 인내해야 하리라. 62년생 서로 두루며 나누어 좋은 수는 없다. 74년생 부친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卯** 39년생 시기상조이나 충분한 자기 사랑을 확보해야. 51년생 우연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63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75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辰** 40년생 폐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52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된다. 64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접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기방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巳** 41년생 생기가 발산하고 예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53년생 새로운 만남을 생긴다. 65년생 적시에 미리 작업으로 외형을 줄이고 실리 편으로 접종하라. 77년생 재수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午** 42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54년생 신중한 애정으로 보라. 66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협력자가 나타난다. 78년생 속전 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未** 43년생 집안이 뒤승진하니 침착성을 잊지 마라. 55년생 흑 님의 입에 오른내려도 관계지 마라. 67년생 빌 및 월 듯한 구상만 있고 낭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 79년생 중간인의 음모를 살펴보라.

**申** 44년생 과음은 금물이고 근친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56년생 독신자는 외출을 해보라. 68년생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다. 80년생 모든 혼행을 실리워주로 바꿔라.

**酉** 45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57년생 사기 열을 뒀을 때는 꼭 꺾어야 한다. 69년생 흑 님의 입에 오른내려도 관계지 마라. 71년생 원한 몇몇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戌** 46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체가 올 수 있다. 58년생 아는 길을 물어어서 가고 우선 만족에 둘드려지 마라. 70년생 큰 고통은 없다. 82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금진하지 않는 것 이 좋다.

**亥** 47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59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다. 71년생 젊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83년생 절대 신규 사업에 참여지 마라. 큰 손해가 있다.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1185>

I'm free Sunday

일요일에는 시간이 납니다

A : We need to figure out a time to get together.

B : Okay, Do you have Saturday available?

A : No, but I'm free Sunday.

B : Okay, that'll work.

A : 함께 모일 시간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B : 알았어요. 토요일에 시간 나세요?

A : 아니요, 하지만 일요일은 시간이 납니다.

B : 좋아요, 그러면 되겠군요.

\* 이번 주말 시간 나세요?

= Do you have time available this weekend?

### 오하요우 니혼고 <1185>

けっこうなお住(す)まいですね。

훌륭한 집이군요

A : けっこうなお住(す)まいですね。

B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退職金(たいしょくきん)をはたいて建(たて)たんですよ。

A : 주위에 녹이 많아서 환경도 좋고 멋있습니다.

B :ええ、私達も氣(き)に入(い)ってゐるんですよ。

A : 훌륭한 집이군요.

B :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털어서 지은 집입니다.

A : 주위에 나무가 많아서 환경도 좋고 멋있습니다.

B : 예, 우리들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お住(す)まい : 주거

はたく : 털다, 털어내다

氣(き)に入(い)る : 마음에 들다

### 니하오 쟁구워 <162>

我属馬。

나는 말띠입니다

A: 哥哥你属什么?